



▷대표적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충북 진천 보탑사 산악음악회 모습(지난해 7월5일).

### 수묵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피리부는 목동' 나왔다

목동이 소를 타고 강을 건넌다. 고집 센 소는 장난꾸러기 소년의 피리소리에 금세 친구가 된다. 나뭇가지에 기대어 잠든 소년은 꿈 속에서 그만 소를 잃어버린다. 소년은 산 넘고 골짜기 건너 소를 찾아 헤맨다. 마침내 소년은 대나무 피리를 불고, 그 소리를 들은 소는 소년에게 돌아온다. 각종 영화제 등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피리부는 목동 이 비디오로 출시됐다. 수묵화 애니메이션이란 독특한 기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상하이 미술영화제작소의 테 웨이 감독 작품이다.

피리소리에 실린 소년과 소의 우정을 다룬 이 작품은 여백의 넉넉함 속에 담아낸 섬세하고 풍성한 감동과 정갈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처음 선을 뉘게 된 동자가 '본상'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심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작품을 보다 보면 움직임의 구성하는 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수묵화라는 점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화선지 위에 붓으로 그린 뒤 다층촬영을 하는 기법으로 제작됐다. 화선지에 먹이 번져나간 자국이 그대로



▷비디오로 출시된 '피리부는 목동'

살아 움직이고, 먹의 농담으로 표현한 세세한 움직임까지 잡아낸다. 63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81년 한 세세한 움직임까지 잡아낸다. 대사 한마디 없는 19분 21초 짜리 단편이지만 세소리, 물소리, 목동의 피리소리와 수묵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수묵화 특유의 서정적 영상미는 정서적 공명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권형진 기자



## 불교가 중심이 되자

문화관광부가 올해를 지역 문화의 해로 선포한 것은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명해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중앙집중주의에 '흔스런 문화' 범으로 치부된 게 사실이다. 거기에 더하여 급격한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나름의 문화적 독자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4일 문화관광부와 '2001 지역 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10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전략·구상을 제시했다. 18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열린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 문화현장 탐방,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향토문화강좌 개설 운영, 종합 웹사이트 운영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문화 컨설팅이다. 추진위는 3월까지 지역문화 컨설팅팀을 구성해 각 지역 문화 행사 기획과 운영, 홍보는 물론 문화공간 운영, 시설,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문활동을 발원 예정이다. 시·군 단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해 지속적인 지역 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지역 문화 육성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는 18일 전국의 지역 문화 전문가와 활동가 100여 명을 초청해 지역 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토론회를 열어 이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기간에 얼마나 실용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 지역 문화 현장을 떠나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 투명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도 빨라야 3월부터 이루어져 출발부터 느슨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조계종의 경우 올해 봉축행사를 지역 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이나 추진위원부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때문에 오히려 교계에서 먼저 지역 문화의 알맹이를 채워주는 일을 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더욱 필요성이 커진다. 각 지역 사찰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

사의 개발은 문화포교의 활성화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24개 교구본사가 올해부터 지역사회와 사찰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역 불교 활성화 사업을 펼치기로 해 이러한 전망을 밝게 한다. 전국의 사암연합회와 사찰들도 지역 문화의 해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역 전통축제를 공동주최하는 등 지역불교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축제 하나를 더 만드는 식이어서 곤란하다.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지역민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문화로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불교는 생활 속에 녹아들어 21세기에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사찰 특성 맞게 문화 행사 개발

### "전통음악 바탕 불교음악 현대화"

대구 국악단 예술감독 박상진 교수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한 불교음악은 결국 서양음악의 변주일 뿐입니다.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상진 교수가 대구 시립국악단의 새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서울 중앙국악관현악단과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지냈으며 96년부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역 토속민요 연구를 통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립국악단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진 것 같다. 그 불길 만큼 김 교수는 일찍부터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매달려 왔다. 그런 만큼 김 교수의 노력은 철저하게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한다.

김 교수와 불교음악의 인연은 20년이 넘는다. 작곡가 고 서창일 선생과의 인연으로 79년 바라밀다합창단 지휘를 맡았고, 불공마하브로 어머니 합창단과 현대종교음악합창단을 창립했다. 지금은 부산 삼광사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다.

직접 작곡한 성악곡이 10여 곡, 국악관현악곡도 여러 곡 만들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스케일이 큰 곡보다 소곡에 관심이 더 많다. '보여주는 음악'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찬불가, 앞으로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권형진 기자



▷소문경



▷쌍용여울 단판발능경



▷십이지 아십팔수경

## 銅鏡 다양하구나

가나아트센터 22일까지 '고려동경전'

화장용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울이다. 지금까지 우리로 만든 거울이 보였지만, 근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동판의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 얼굴을 비췄다.

그러나 동경은 단순히 얼굴을 비춰 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었다. 무덤이나 탑의 사리장엄구 속에 동경을 넣기도 하고 뒷면에 갖가지 문양과 길상어, 교훈적인 글귀를 새긴 것도 이 때문이다. 때로는 불보살을 새겨 넣어 호신불로 삼기도 했다.

22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공예관에서 열리는 '고려동경전'은 동경 뒷면에 새긴 문양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고려인들의 사상,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다. 연화문경, 쌍용보화문경, 범어연화문경, 장형경 등 고려시대의 동경 300여 점이 전시된다.

동경은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꽃모양, 탐오양, 종모양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뒷면에는 인간, 꽃, 풀, 나무, 새, 십이지신 등을 새겼으며 때로는 신화나 전설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거울 하나에도 나름의 뜻을 담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절로 묻어난다. 02720-1020 권형진 기자



▷지난해 5월 공연했던 '그림으로 웃다' 동승의 노래-풍경의 한 장면.

### 심장병 어린이 돕기 '풍경음악회'

15일 진주 경남문화회관

음악과 시, 이야기가 함께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림으로 웃다' 한 동승의 노래-풍경이 새해 다시 무대에 오른다. 15일 오후 6시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원성스님 초청 작은 음악회' 이번엔 심장병으로 고

풍방은 이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담았다.

심장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설립한 갈로심장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지난 해 부처님오신날 공연을 그대로 옮겼다. 수원포교당 가평빈가소년소년합창단과 원성스님이 함께 하고 진주아버지합창단, 노영

심, 진주시립관현악단 원악5중주팀이 힘을 보탠다.

'풍경'은 원성 스님의 시에 유익성, 이종만, 정유탥 씨 등 탄탄한 역량을 갖춘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만든 무대. 정제화된 형식을 벗어난 음악과 영상, 시와 그림이 만나는 실험적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 깨달음의 네가지 '즐거' 열린 마음오의 삶' 등 2막 4장으로 구성돼 있다. 059747-0106 권형진 기자

# 미수타

##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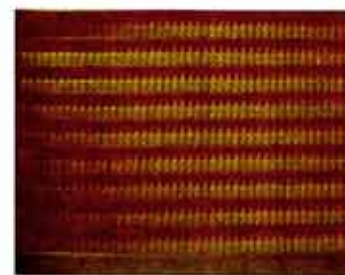
- ◎ 주문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 ◎ 주문시 전구간격 기준은 2주전 주문 (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전 구



인 등



-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 氣『로박요법』효과가 뛰어납니다!!

	<b>로박파스 (1)</b> 종류 : 희귀종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b>로박파스 (2)</b> 종류 : 무릎, 기타종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b>뱀메달 (1)</b> 종류 : 전장 수량 : 1개 가격 : 87,000원
	<b>뱀메달 (2)</b> 종류 : 전장 수량 : 1개 가격 : 130,000원		<b>부착용</b> 종류 : OMC 수량 : 1개 가격 : 24,000원		<b>메트</b> 종류 : 복수메트 수량 : 1개 가격 : 800,000원

반도체 칩을 이용한 새로운 氣 요법

- 현직의사가 개발하였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단기간 효능 확인
- 전국병원 한방병원 납품 중



종합 세트 가격 : 210,000원

활은 인체 세포가 전기적 균형을 잃으면 비정상세포가 증식을 유발하는데 음(-)의 氣를 체내에 침투시켜 生氣를 발생,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세포내 응혈을 방출시켜 몸에 氣力와 活力을 넣어 줍니다.

- 몸이 불편하신 스님은 방문하시면 무료로 봉사해드립니다.
- 특약질 영입하신 분 (기공수련자, 수지형, 팔방, 간행지표자)모임
- 액자 : 전화를 주시면 '우리의 주치의 로박요법' 과 Tape를 보내드립니다.



**뼈에 좋은 토종 홍화씨**  
경년기 골다공증, 연골이 약한 분, 퇴행성 노인분, 기타 뼈가 약하신 분 1달:150g 45,000원  
\* 최신 개발된 과립형은 위장장애가 없고 흡수가 잘 됩니다.

韓國氣研究院 02) 455-6944 02) 453-5851